

# 봄 강변



이정규  
캘거리 교민  
교육학자/시인

싱그러운 새 봄 신고  
산뜻한 나들이 가는  
맑은 강물에  
청둥오리 한 쌍  
날개 짓 하며  
물 놀이 하고  
사랑의 기쁨 나누어  
인연의 물 메아리 만들고

하얀 백로(白鷺) 한 마리  
잔잔한 수면에 그대 닮은  
물그림자 만들며  
한 쌍 되어 경쾌히 날아 가고  
징금 다리 건너 먼 저곳  
백로 한 쌍  
우아한 나래 저으며  
파이란 하늘 속으로  
너플너플 헤엄쳐 갈 때  
칭성한 봄 빛 물든  
푸른 하늘엔  
물오리 때 무량(無量)한 구름 되어  
여여로이 흘러 가네

흐르는 강물 잦은 돌 어귀  
회색 장삼(長衫) 걸친  
왜가리 한 마리  
가느다란 두 다리로  
우두커니 서서  
무심히 흐르는 강물  
물거품 일어나는 곳  
물끄러미 바라보고  
허깨비 같은 이 세상 머물며  
가없이 흐르는  
아지랑이 같은 마음 추스리고

북천 강 푹 따라  
십여리 활짝 핀  
아름드리 벚 나무가 만든  
화사한 꽃 길 사이 사이로  
이름 모를 산새 가족  
사바세계 봄 내음  
요리조리 맡으며  
바람 따라 즐겁게 노래하고  
기쁨 나누네

\* 이정규의 시집, <자연과 영성의 노래> 중에서

## <종교컬럼>

이기 형 목사  
하늘가족교회 담임



###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굳이 이렇게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한데,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거 같아 위로의 몇 마디 전해줄까 싶어 바쁜 시간에 몇 자 적고 있지.

나로 말하자면,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뭐라 소개하긴 마땅찮은데, 암튼 각자 알아서 편하게 생각하고 암튼 난 이렇게 일단 말씀이 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게선 서운하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해. 내가 맘 놓고 활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난 순수하게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짧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개고생하지 말고 신나게 즐기라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는 사람은 알거야. 주말쯤 되면 거의 내 친구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말이지, 일요일만 되면 예배에 가서는 회개라는 걸 하고 내 수고를 도로묵으로 만드니, 도대체 예배는 누가 만든거야? 예배에 못가게 하려고 사납게 핍박하고 박해했었는데 목숨걸고 가는데야 당해낼 수가 있어야지. 지하 무덤 속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더라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길래 포기했지. 대신 요즘은 화창한 날씨와 풍족한 여유를 주어서 야외로 쫓겨내거나 예배할 때 살짝 판 생각을 넣어주긴 하지.

그런데 이게 웬 떡이야? 코로나지 그게 무섭다고 스스로 알아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하러 나오질 않는거야. 나보다 더한 녀석이 나왔네. 너희들은 내가 죄의 미끼를 던져

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친근하게 생각하더니 코로나는 아예 상대를 안하더라. 마스크며 장갑이며 집 밖엔 나서질 않고 집에 꼭 박혀 있잖아. 리스펙 코로나. 나보다 강한 놈이 있더니, 앞으로 한 수 배워야겠어. 덕분에 이렇게 주욱 가다보면 내 친구들이 많아지겠어.

들자하니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며? 안하는 것보단 낫지. 비밀이긴 한데 이것도 내 작전 중에 하나였지. 내가 하나님을 좀 알잖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닌데, 해수욕장과 캠핑장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하신다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찾는구나' 그렇게 감격하신다고. 그니까 뭐하러 교회까지 가냐고, 편하게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한 교회에만 충성할게 아니잖아. 고리타분한 동네 교회 말고 멋지고 큰 교회들 쉽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 TV도 만들어 줬거든. 그걸 보고 예수믿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걸 보고 교회를 안가는 기독교 친구들이 있더라고. 간혹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TV라는 게 오락상자 아닌가?

예전엔 꼭 예배당엘 가야 했고, 기독교 TV도 대형교회들이나 할 수 있는거고 보통 교회는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이제 유튜브 세상으로 무한경쟁이 시작됐거야. 목사들이 정신차려야 할 걸. 같은 시간대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있다고 은혜 떨어질 법하면 옆 교회 유튜브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된거야. 요즘같이 분주한 세상에 한 시간이나 예배당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는

데, 이제는 틀어놓고 얼마든지 딴 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멀티가 좀 되잖아. 지루하면 skip해서 뛰어 넘으면 되고, 현금하지 않아도 눈치 불 일도 없고, 이거 좋은 세상 만났는데.

니들도 예배본다고 하잖아. 물론 '보다'는 말이 '구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참여하고 경험한다는 뜻도 있긴 해. 맛을 본다고 하면 구경하는건 아니잖아? 너무 유식한 척하면 싫어할테니까, 암튼 예배는 보는 거라고. 핸드폰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든지 방송을 보는거야.

참 좋은 세상이다. 이전 굳이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 일요일엔 느긋하게 늦잠을 즐기고 꾸밈 필요도 없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켜는거야. 뷔페처럼 골라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풍요로운지. 유수한 교회들의 예배를,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내 손바닥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줄이야, 이게 천국이지.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문을 열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입맛들인 편리한 온라인이 있잖아.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이 대세야. 그러니 시청자의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시. 시청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방송국이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요즘 TV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지루할걸 어떻게 참아. 지루함은 시청자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거라고. 시청자의 입맛이 까다롭다는걸 알려줘야 더 노력해서 수준 높은 설교를 서비스 하는거지. 우리 함께 그런 좋은 세상 만들자고. 근데 아직도 내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

나무는 제손으로 가지를 꺾지 않는다!



나무는 제손으로 가지를 꺾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제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버린다.

들스도이